

## 2014 낙농경영 실태 조사

- 가축사육제한, 환경문제로 낙농업 유지 어려움 호소
- 향후 경영계획은 규모확대보다 현상유지 선호
- FTA시대 낙농대책으로 전국단위 낙농제도 개선 필요

낙농가들은 향후 경영계획에 있어 규모확대(32%)보다는 현상유지(54%)를 더 원하고 규모축소(1.7%)와 낙농포기(3.4%)의사는 전년(7.7%)대비 2.6%p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.

그리고 낙농을 포기하는 주된 이유로는 환경문제가 꾸준히 1순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번에는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. 이는 최근 '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'을 포함한 환경관련 규제가 강화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. 낙농가들은 국내 낙농업 전망에 대해 88%가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10%정도는 '해볼 만하다'는 낙관론도 보였다. 시급한 환경현안으로는 무허가 축사(39%)와 퇴비화시설(36%) 문제를 꼽는 낙농가가 가장 많았으며,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가당 최소 5,000만 원~2억 원의 추가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. 또한 FTA시대에 가장 중요한 낙농대책으로는 '전국단위 낙농제도 개선'(35%)과 '제도적인 우유소비확대 마련'(29%) 등으로 나타났다. 목장의 토지이용과 관련한 규제사항으로는 가축사육제한구역(31%), 상수원수질보전대책지역(14%), 군사시설보호구역(13), 개발제한구역(8%) 순으로 나타났다. 지역별로는 경기도와 강원도의 경우 '군사시설보호구역' 때문이라는 응답이, 충청도와 경상도는 '가축사육제한구역'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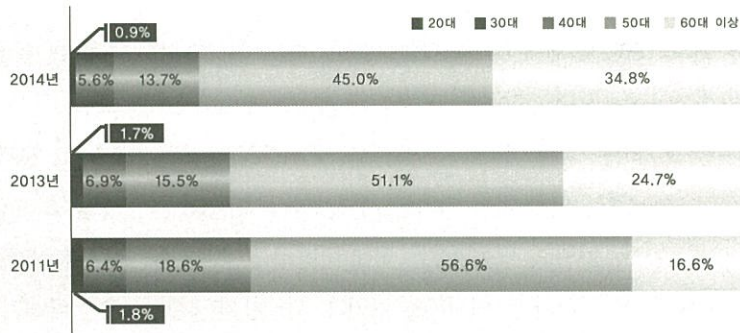
이번 조사는 협회 낙농정책연구소(소장 조석진)가 최근 국내 낙농의 경영현실과 당면과제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낙농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4년 5월 19일부터 6월 20일까지 한 달간 낙농조합의 협조를 얻어 전국의 6,000 농가 중 700 농가를 선정해 실시, 그중 설문에 참여한 542농가의 응답결과를 분석한 것이다. 낙농정책연구소는 이번 조사 결과를 '2014 낙농경영 실태조사' 책자로 발간해 유관기관 및 협회 도지회 등에 배포했다.

경영개요

□ 경영주의 연령은?

- 경영주의 고령화 심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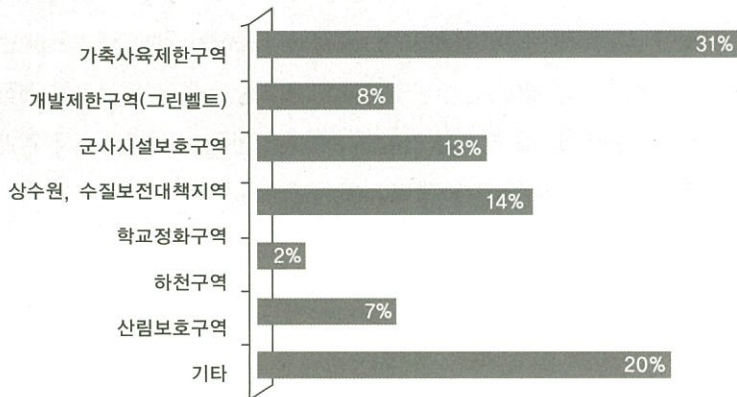
2011년 이후 경영주의 연령별 구성비 변화를 보면, 20대에서 50대까지는 감소추세가 지속되는 반면, 60대 이상은 증가가 지속되 경영주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. 따라서 낙농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금후 젊은 후계자의 신규진입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.



□ 목장의 토지 규제사항은?

- 가축사육제한구역 가장 영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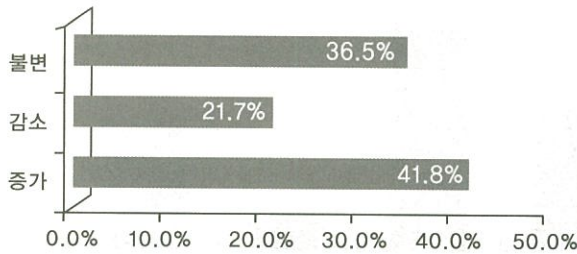
목장의 토지이용과 관련한 규제사항은, 가축사육제한구역(31%), 상수원·수질보전대책지역(14%), 군사시설보호구역(13%), 개발제한구역(8%) 등으로 나타났다. 지역적으로는, 경기·강원은 군사시설보호구역(27.8%), 충청은 가축사육제한구역(56.9%), 경상은 가축사육제한구역(38.0%)이 각각 가장 높게 나타났다.



□ 최근 1년간 원유생산량의 변화는?

- 대부분의 농가에서 원유생산량 같거나 증가함

질문에 답한 농가들의 최근 1년간 원유생산량변화를 보면, ①증가(41.8%), ②불변(36.5%), ③감소(21.7%) 등으로 나타났다. 생산이 증가한 경우 그 이유로는, ① 쿼터매입을 통한 규모확대(32.9%), ②겨울철 이상기후(25.1%)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.



□ 1일 원유생산량과 쿼터량은?

1일 원유생산량 1,000~2,000ℓ 규모에서 쿼터규모는 각각 42.6%와 44.3%, 500~1,000ℓ 규모에서 각각 39.0%와 40.2%로 나타나, 이 계층에 공쿼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. 반대로 500ℓ의 소규모 경영과 2,000ℓ 이상의 대규모 경영에서는 1일 원유생산비율이 쿼터비율을 상회함으로써 잉여유의 발생가능성을 시사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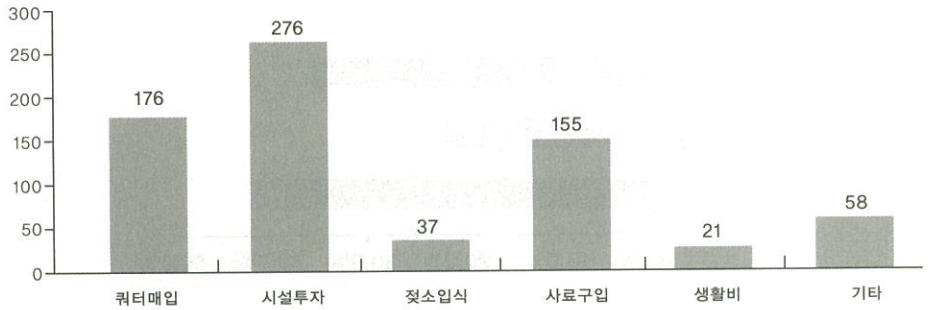




경영관리

□ 농가의 부채는?

2014년 현재 표본농가의 호당 평균부채는 2억 5,400만 원이며, 2억 원 이상의 고액부채를 안고 있는 농가의 비율이 52.5%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부채발생의 주된 원인은 ①시설투자, ②퀴터매입, ③사료구입 등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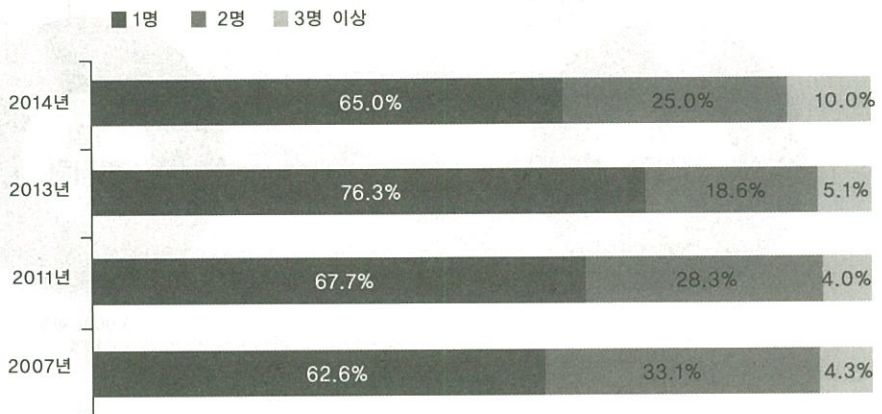


주: 복수응답 허용

□ 목장의 노동력 구성은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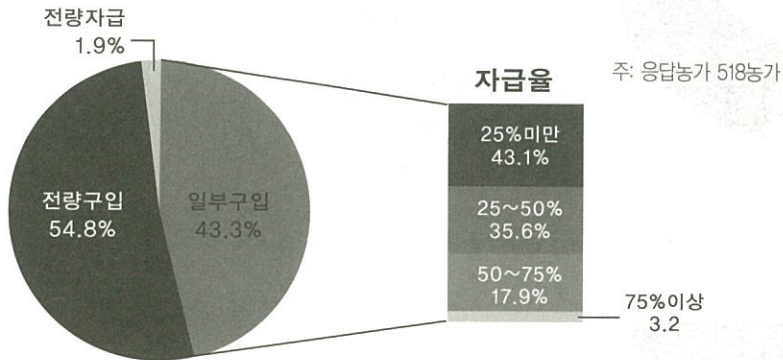
- 대부분 부부노동 중심

1인고용의 비율이 65.0%로 가장 높고, 2인 및 3인을 고용하는 비율은 각각 25.0%와 10.0%로 나타났다. 또한 고용노동력을 내국인과 외국인에 의존하는 농가는 각각 6.1%와 8.9%로 나타났다. 가족노동의 참여현황은 ①2인(66.8%), ②1인(16.9%), ③3인(14.2%) 순이며, 대부분 부부노동 중심의 경영형태임을 알 수 있다.



### □ 조사료 조달방법은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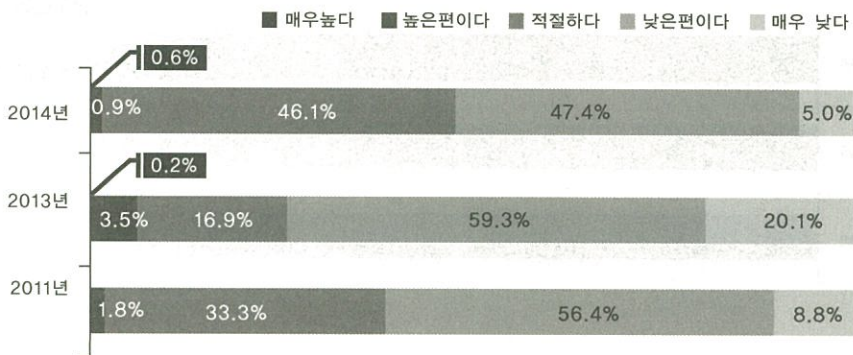
조사료의 조달방법으로는 ①전량구입(54.8%), ②일부구입(43.3%), ③전량자급(1.9%) 등으로 나타났다. 일부를 구입에 의존하는 경우의 구입비율은 ①25% 미만(43.1%), ②25~50%(35.8%), ③50~75%(17.9%), ④75% 이상(3.2%) 등으로, 대부분의 농가는 조사료 구입비율이 50% 미만임을 알 수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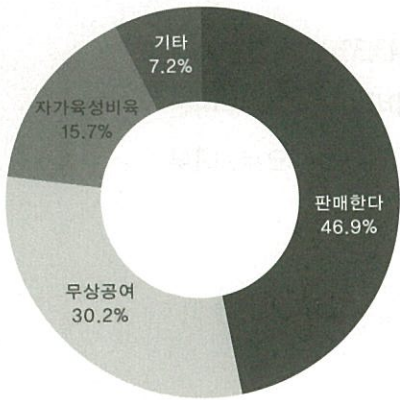


### □ 현 유대는 적절한가?

- 원유가격연동제 시행 이후 '적절하다'는 의견 많아져

현 유대수준과 관련해서는 ①매우 높다(0.6%), ②높은 편이다(0.9%), ③적절하다(46.1%), ④낮은 편이다(47.4%), ⑤매우 낮다(5.0%) 등으로 나타났다. 이는 2013년 8월 원유가격연동제의 시행 이전에 실시된 조사결과와 비교할 때 '적절하다'가 29.2% 증가한 반면 '낮은 편이다'와 '매우 낮다'가 각각 11.9%와 15.1% 감소한 것이다.





□ 초유떼기 처분방법은?

초유떼기 처분방법으로는 ①판매한다(46.9%), ②무상공여(30.2%), ③자가육성비육(15.7%), 기타(7.2%)와 같이 나타났다. 초유떼기의 두당 판매가격은 2~3만원(48.5), 2만원 미만(42.6%) 등으로, 2013년에 비해 낮아지고 있다. 따라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는 관리소홀에 따른 폐사증가로 자칫 동물복지 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.

쿼터관리

□ 연간 쿼터 구매량은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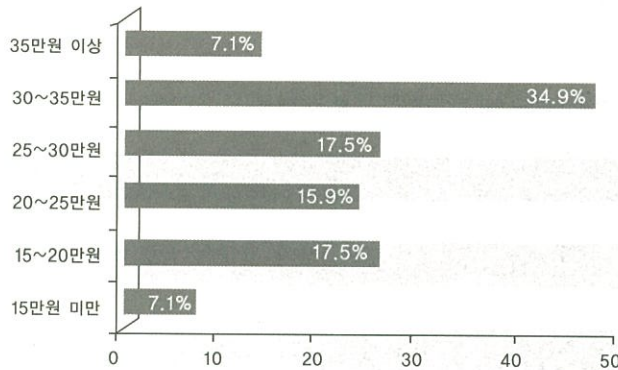
- 대부분 400ℓ 미만

연간 쿼터구매량은 ①200ℓ 미만(45.6%), ②201~400ℓ (46.4%)와 같이 나타나, 대부분 400ℓ 미만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. 또한 연령대별로는 30대, 50대, 60대의 경우 대량구매(1,000~2,000ℓ)가 주축을 이루는데 비해, 20대, 40대, 70대는 소량구매(500~1,000ℓ)의 구매비율이 높게 나타났다.



□ 리터당 쿼터구매가격은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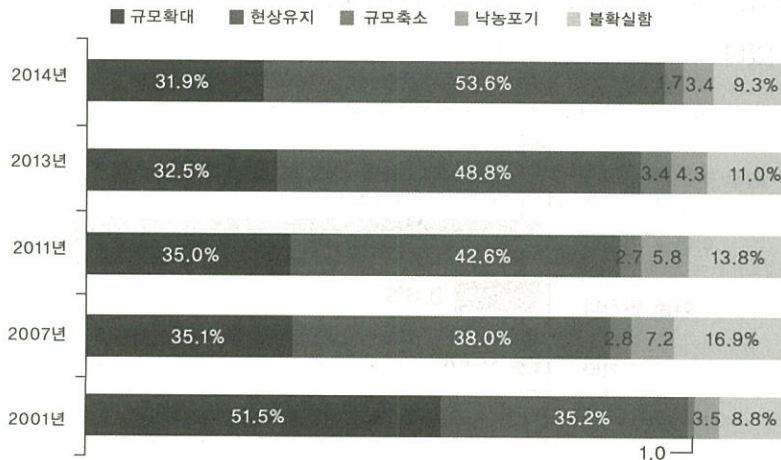
①30~35만원(34.9%), ②25~30만원(17.5%), ③15~20만원(17.5%), ④20~25만원(15.9%), ⑤35만원 이상(7.1%), ⑥15만원 미만(7.1%) 등이다. 이처럼 쿼터구매가격이 다른 것은 점유주체에 따라 쿼터관리 및 실질유대의 형평성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.



경영계획

□ 금후 5년 이내 목장 경영계획은?

금후 5년 이내 목장의 경영계획에 대해서는 ①현상유지(53.7%), ②규모확대(31.9%), ③불확실함(9.3%), ④낙농포기(3.4%), ⑤규모축소(1.7%)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. 또한 지난 14년 동안(2001~14) 규모확대를 희망하는 농가와 현상유지를 희망하는 농가의 비율은 각각 감소 및 증가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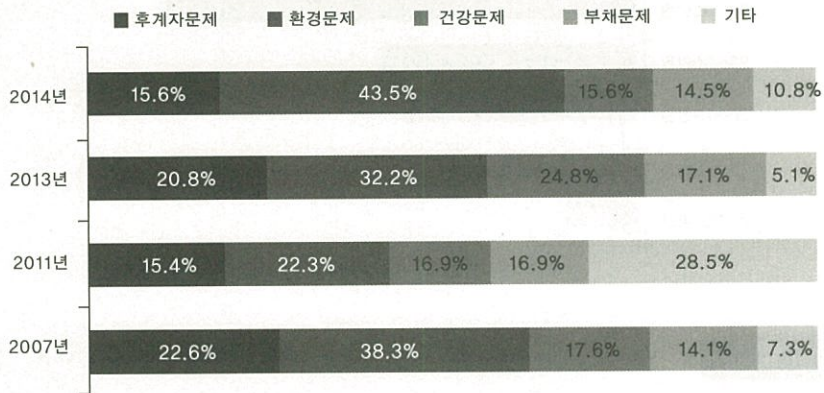




### □ 낙농을 포기하는 주된 이유는?

#### - 환경문제가 지배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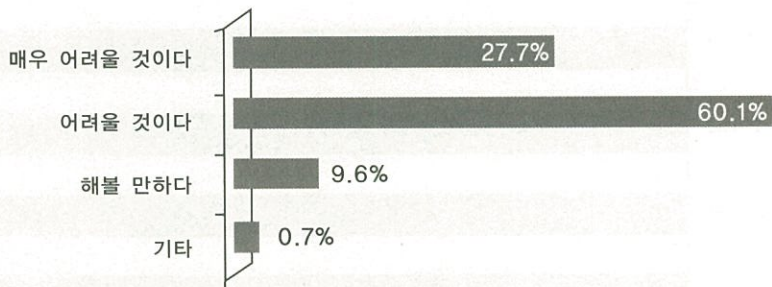
낙농을 포기하겠다는 이유로는 ①환경문제(43.5%), ②후계자문제(15.6%), ③건강문제(15.6%), ④부채문제(14.5%), ⑤기타(10.8%) 등으로, 환경문제가 지배적임을 알 수 있다. 이는 최근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을 포함한 환경관련 규제강화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.



### □ 낙농업의 전망에 대한 생각은?

#### -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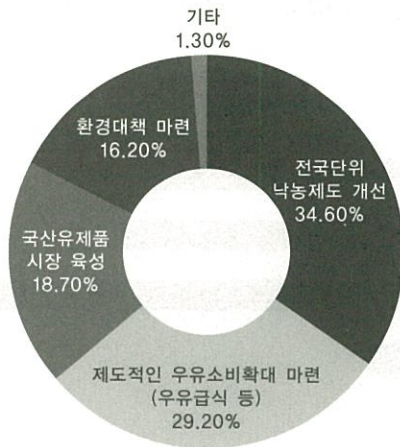
FTA 체제 하에서 금후 낙농업의 전망에 관해서는 ①어려울 것이다(60.1%), ②매우 어려울 것이다(27.7%), ③해볼 만하다(9.6%) 등으로,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. 그럼에도 약 10%의 낙농가가 ‘해볼 만하다’ 라고 답한 것은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.





□ 중요한 낙농대책은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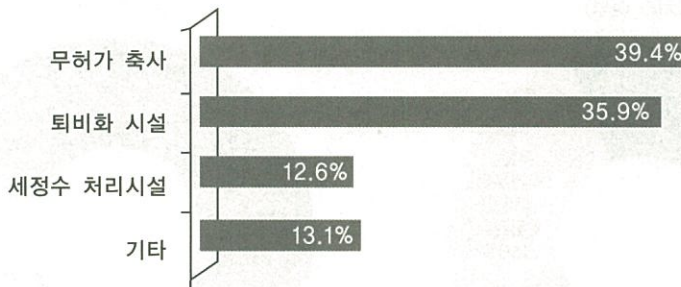
FTA 시대에 가장 중요한 낙농대책이 무엇인가에 대해 ①전국단위 낙농제도개선(34.6%), ②제도적인 우유소비확대(29.2%), ③국산유제품시장육성(18.7%), ④환경대책마련(16.2%) 등으로 나타났다.



환경문제

□ 가장 시급한 환경현안은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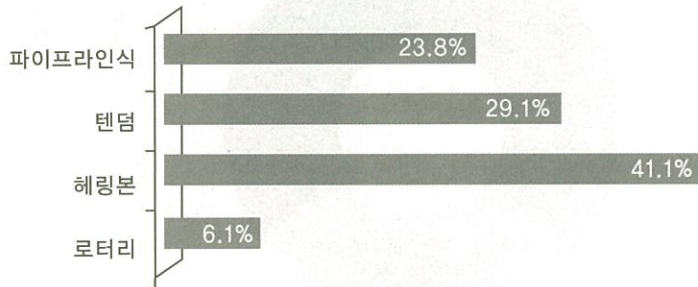
시급히 해결해야 할 환경관련 현안으로는 ①무허가축사(39.4%), ②퇴비화시설(35.9%), 세정수처리시설(12.6%) 등으로 나타났다. 환경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투자규모는 ①1~2억원(28.7%), ②0.5억원 미만(27.9%), ③0.5~1억원(25.7%)으로, 금후 분뇨처리시설을 위해 상당한 추가투자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.



□ 목장의 착유시스템은?

- 대부분이 파라식 착유시스템

목장의 착유시스템은 헤링본(41.1%), 텐덤(29.1%), 파이프라인(23.8%), 로터리(6.1%) 등으로 나타났다. 따라서 대부분의 낙농가가 파라(parlor)식 착유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으며, 그 같은 의미에서 금후 착유실 세정수의 적절한 처리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.



□ 낙농세정수의 처리

낙농세정수의 배출형태로는 ①우분·폐기우유 모두 분리하여 처리한다(41.1%), ②폐기우유만 혼입되고 우분은 분리한다(29.1%), 우분, 폐기우유 모두 혼입된다(23.8%) 등으로 나타났다. 이같은 현실로 미루어 볼 때 우분 또는 폐기우유를 혼입하여 처리하는 52.9%에 달하는 낙농가의 경우 세정수의 적정처리를 위한 추가적인 시설투자가 불가피할 전망이다. 한편, 세정수의 처리방법으로는 정화처리(63.9%), 액비처리(11.4%), 공공처리(6.3), 기타(18.4%)로 나타났다. ㉠

